논술 (인문계)

아래의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①

소크라테스: 법률은 아마도 나에게 말할 걸세. “소크라테스여, 지금 그대가 꾀하는 것으로 그대는 우리한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대를 태어나게 하여 양육하고 교육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온갖 훌륭한 것들을 그대에게 나눠 주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테네인들 가운데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것들을 갖고서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으며 우리 법률의 어느 조항도 그의 이주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않지. 하지만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을 보고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우리가 시키는 것을 이행하기로 우리와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여기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삼중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그 자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우리에게 불복하고, 자기를 양육한 우리에게 불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를 납득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지. 소크라테스여, 그대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가 행할 경우에는, 그대도 이 비난들을 고스란히 받게 되지. 그것도 아테네인들 중에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 법률에게, “그건 무엇 때문이죠?”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법률은 내가 아테네인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률과의 합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나무랄 거야. 법률은 내가 아테네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들면서 말하겠지.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그처럼 열렬하게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따라 시민 생활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이 나라가 그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경우만 해도 그대는 그 재판에서 국외추방의 형량을 제의할 수 있었지. 지금 그대가 나라의 뜻을 거스르며 국외로 탈출하려는 바로 그 일을, 그때는 나라가 기꺼이 허락하는 가운데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 재판에서 그대는 설령 죽게 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뻐기면서 국외추방보다는 죽음을 택했지. 그러나 지금 그대는 자신이 했던 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거니와 법률인 우리를 존중하기는커녕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 그대는 우리와 맺은 합의 사항들을 어기고 도망하려 함으로써,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함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라. 그대가 우리와 시민 생활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써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 것인가?” 크리톤, 나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동의할밖에?

크리톤: 소크라테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

②

고향을 떠나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체를 경험하고 공부한 리쿠르고스는 마침내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스파르타의 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입법은 삼 단계로 진행되었다. 지도자를 포함하여 서른 명으로 구성된 원로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시민들이 투표로 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이 투표 결과에 대해 다시 원로원과 왕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리쿠르고스가 주도한 입법의 핵심은 시민들을 혼자서는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도록, 그리하여 늘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이 되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전적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리쿠르고스는 개인의 소유물을 모두 공동 소유로 해서 불평등의 뿌리인 개인의 탐욕을 없애는 한편, 계속되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적인 삶의 영역이 남지 않도록 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족의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심사하여 기를지 버릴지를 결정했다. 처음부터 건강과 체력을 타고나지 못한 아이는 아이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일곱 살이 되면 아이들을 나라가 맡아 집단생활을 하게 했으니 아이들은 같은 규칙과 제도 아래 놀고 배우는 데 익숙해졌다. 소년들의 교육은 일종의 복종 연습이었다. 읽고 쓰기는 최소한만 배웠고 나머지 교육은 오로지 복종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일에 바쳐졌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강해졌고 스파르타는 전쟁 준비보다 전쟁이 더 많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마침내 리쿠르고스가 세운 제도들이 스파르타에 뿌리를 내려 충분히 성장함으로써 스파르타는 자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 리쿠르고스는 자신의 입법이 변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후세에 전해지기를 열망했다. 그는 민회를 소집해 놓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미 취해진 조치들로도 국가의 번영과 미덕을 증진하기에 충분하겠지만 델포이 신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아직 남았으니, 그 절차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가 델포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법을 준수하되 바꾸거나 변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곳에서 돌아오면 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했다. 백성들은 모두 이에 찬동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정체를 유지하고 지키겠다는 맹세를 백성들로부터 받은 다음 그는 델포이로 떠났다. 신전에 도착하자 그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제정한 법이 과연 국가의 번영과 미덕을 증진하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냐고 물었다. 그 법이 훌륭하여 국가가 그의 정체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더없이 추앙 받게 될 것이라는 신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이 신탁을 받아 적어 스파르타로 보냈다. 한편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는 것이 아직은 짐스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곡기를 끊고 굶어 죽었다. 정치가는 죽으면서도 나라에 봉사해야 하는 만큼 정치가의 인생 종말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덕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더없이 훌륭한 일을 성취한 만큼 자신에게는 죽음이 행복의 진정한 완성이 되고, 시민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전에 베푼 모든 축복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정체를 준수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③

인규의 얼굴이 새삼스레 굳어진다. 이 사내가 지껄이는 말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말뜻을 알기 위해 인규는 이 사내와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뭍에서 하면 안 될 얘기를 저한테는 왜 하셨죠?"

"들어만 두라는 게지 옮기라군 하지 않았소. 하긴 옮겨봤자 크게 문제될 것두 없지. 어차피 지난 일이라 새삼스레 뒤집힐 일두 아니구……"

"진실이라는 건 소문으루 끝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그 사건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뒤집혀봐야 어쩌겠소? 범인이 잡히질 않을 텐데?"

"진실이 밝혀지는데 범인이 왜 안 잡힌단 말입니까?"

"외지 사람 하나를 죽였다구 가막도 주민들이 자기들 손으루 제 고장 사람을 잡아서 뭍에다 넘길 것 같소?"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데도 가막도 주민들은 모른 체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바루 여기 가막도의 좀 별난 풍습이오. 뭍에서 죄인으루 점을 찍어두 가막도에서는 소용이 없소. 여기서 인정하는 죄가 아니구는 범인을 쉽게 뭍으루 내주지 않으니까."

"이상한 풍습이군요? 가막도 사람들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나라에 엄연히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국법을 무시하구 자기들 풍습대루 죄인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국법이 만능은 아니오. 그리구 국법이 사해(四海) 모든 백성에게 늘 공명정대하구 옳게만 적용되지두 않소."

사내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진다. 노여움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슬픈 표정이다. 사연이 있을 듯했으나 인규는 애써 사내를 외면한다. 지금 인규가 알아야 될 일은 이 섬에 떠도는 살인 소문에 관한 것이다.

"국법까지 무시하는 그런 결정들은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을의 향당(鄕黨)회의요."

"언제부터 그런 회의가 있었죠?"

"이 섬에 처음 입도(入島)한 도주(島主)때부터 있었다구 합디다. 중간에 더러 중단되기두 했지만 아마 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모양이오."

④

스파르타의 왕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정책 1: 저수지를 만든다.

정책 2: 방풍림을 조성한다.

정책 3: 시민공원을 만든다.

왕은 스파르타의 기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예측한다.

예측 1: 큰 가뭄

예측 2: 심각한 한파

예측 3: 평온한 기후

각각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시민들이 누리게 될 사회적인 이익은 세 가지 예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정책 1	정책 2	정책 3
예측 1	150	50	100
예측 2	50	150	100
예측 3	50	50	100

반면 각각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왕이 누리게 될 개인적인 이익은 예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정책 1	정책 2	정책 3
예측 1	7	5	10
예측 2	5	7	10
예측 3	5	5	10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하고자 하며 시민들도 이를 알고 있다.

(가) 시민들은 왕의 예측이 무엇인지 안다. 각 예측 하에서 왕의 선택이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은 왕에게 크기 6의 손실로 제재를 가한다.

(나) 시민들은 왕의 예측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그가 어떤 예측을 할지에 대한 확률분포만 안다. 따라서 시민들은 (가)와 같은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확률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확률
예측 1	0.4
예측 2	0.4
예측 3	0.2

Ⅰ. ①, ②, ③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75점)

Ⅱ. ④에 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여 답하시오. (25점)

1. (가)의 상황에서 왕이 예측 1을 하고 정책 1을 선택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시민들은 왕에게 제재를 가하겠는가?

2. (가)의 상황에서 왕이 시민들의 제재로 입게 될 손실까지 고려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한다고 하자. 왕이 각 예측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설명하시오.

3. (나)의 상황에서 왕의 선택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자. 왕이 각 예측 하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설명하시오.

4. (나)의 상황에서 왕이 정책 3을 선택하면 시민들은 크기 6의 손실로 왕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령을 제정하려고 한다. 사회적 이익의 기댓값이라는 관점에서 이 법령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왕이 예측 3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이익은 법령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작다는 것을 설명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된 글에서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1,000자(±50자)로 하고, Ⅱ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